

- 02 **청운동 사계 | 글 남혜경 사진 원유자**
해바라기
- 03 **발행인 편지 | 정대련**
자비롭고 지혜로운 발걸음이 한가위만 같기를
- 04 **함께 해 즐거웠어요 | 이영미**
2025 '새활용' 아이디어 공모전과 아트패션쇼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접목하여 가치를 높이다
- 08 **우리 차수를 소개합니다 | 최연지**
불교여성개발원의 기동, 1~5차 차수 이야기
끈끈한 정으로 뭉쳐 가장 단합이 잘되지요
- 10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 윤효진**
연화사 묘장스님
구호 전문 수행자, 부개는 프로듀서
- 13 **나는 여기서 기도한다 | 김영희**
꿈에도 그리던 영험한 기도처
낙산사 흥련암
- 16 **템플스테이 다녀왔습니다 | 도일 노태균**
아내와 함께 대원사에서
명상과 차담으로 채운 특별한 하루

- 18 **아기 부처 엄마 보살 | 이예지**
임강사에서 만난 동자승 가족
하늘과 바람과 별과 아이들
- 20 **불교와 여성 | 조민기**
75세에 음식디미방 집필한 여중군자 장계향
이 책을 눈이 이리 어두운데 썼으니...
- 22 **사찰 문화 배워봅시다 | 전영숙**
종이꽃으로 피어난 부처님
안정사 땅설법 지화의 세계
- 26 **지금 여기 우바이 | 이지윤**
나의 배움터 우리의 놀이터
오늘도 풀가동, 여성광장 9 to 6
- 28 **개발원 소식**
- 30 **산하기관 센터 소식**
- 34 **회원동정**
- 35 **재정 동참 현황**



우바이예찬

2025년 통권 94호

발행인 정대련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편집위원장 남혜경
편집위원 김영희, 윤효진, 이예지, 조민기
편집간사 최연지, 이지윤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
주소 03047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0길 20(청운동 103번지)
전화 02-722-2101~2 팩스 0502-722-2000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E-mail wisdom2007@daum.net

- 우바이는 여성 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표지사진 : 조현숙(10차 108인, 전 불교사진협회 회장)

한 폭의 데칼코마니 같은 풍경
안동 고산정의 가을



해바라기

해를 바라며 쭉쭉 크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숙입니다.
다 자란 거지요

내 마음도 저 꽃처럼 한 번씩은 내려놓고 싶습니다.
더 자라면 둘 데가 없으니까요.

를 쓰듯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평화

이 다정한 마음을 그대에게 드리니
그대 마음속에서도 둘 데 없이 넘쳐나면
또 다른 그대에게 건네주세요.

비워진 내 마음은 뜨거운 태양이 수그러들어도
다시 조금씩 차오를 테니까요.

글 남혜경_ 11차 108인 사진 원유자_ 4차 108인

자비롭고 지혜로운 발걸음이 한가위만 같기를

나무 금강반야바라밀 나무 금강반야바라밀 나무 금강반야바라밀~_()_

금강경 독송 소리가 불교여성개발원의 가을날 새벽을 엿니다. 올여름 도무지 식지 않을 듯 끓어오르던 폭염과 멈추지 않을 듯 쏟아붓던 폭우는 입추·처서·백중을 지나며 저만치 가을바람 따라 떠나고, 붉은 단풍 찾는 눈길이 반갑습니다.

온 세상이 힘겨웠던 여름 중에도,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은 여전히 바쁘고 짝 찬 시간을 엮어왔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이어진 지구환경 살리는 재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아트 전시와 패션쇼, AI 시대를 사는 시니어들이 ChatGPT와 대화하며 그림책 편찬하기, 불교여성연구소의 불교이론 강의와 회원들의 전문역량이 화합한 응원한데이 프로그램, 땅설법 지화(紙花, 紙華)가 지나는 불교적 예술성과 전법의 의미 탐구까지, 여성광장 2층 지혜실과 3층 자비실은 쉼 없이 분주했습니다.

김인숙 고문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고봉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피자데이, 가평 대원사에서 다정한 부부템플스테이, 홍련암과 봉정암을 향한 지극한 기도 수행길, 장계향 디미방에서의 우리 맛 찾는 전통음식문화 체험, 정각사 정목스님과 함께 한 영108인과 어린 자녀들의 해맑은 웃음과 부처님 사랑하기 등등! 여름 지나 가을을 맞이까지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의 세상 향한 자비롭고 지혜로운 발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은 오늘도 기도하고 배우고 봉사하며 서로를 응원합니다.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노래하는 추석입니다.

택내 두루 반갑고 흐뭇한 명절 보내십시오~_()_ 🍁

2025 '새활용' 아이디어 공모전과 아트패션쇼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접목하여 가치를 높이다

지혜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 산하단체인 (사)지혜로운여성에 소속되어 108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새활용(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주관하여 올해 3회를 맞이하였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가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과잉은 지구를 이렇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땅, 공기, 바다를 오염시키며 생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여성 불자들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미래 환경을 위하여 몸소 실천하고 널리 알려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버려지는 제품을 높은 가치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

사용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새활용'이라고 한다면 '새활용'이란 버려지는 제품을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접목하여 예술성, 심미성, 기능성 등 높은 가치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전반을 운영하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일이며, 많은 사람들이 새활용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는 데는 공모전 개최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이영주 108인 회장(왼쪽)과 이영미 지혜아카데미 대표(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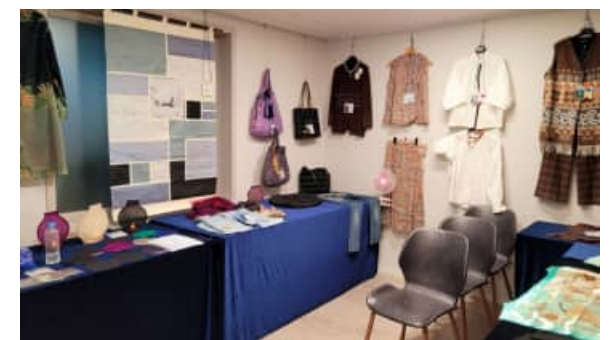


2023년 제1회 새활용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제품 제작과 전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출품한 작품으로 아트패션쇼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점점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회원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도 동참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행사가 되어 종로구청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불교방송 등 여러 언론에서 여성 불자들의 환경보호, 자원 재활용 전시가 매우 뜻깊은 행사라는 호응을 얻게 되었다. 앞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은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폭넓은 교류로 나아가고 싶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사이클링 특강과 새활용 공모전

3월 14일 '새활용 공모전' 기획과 포스터 제작 및 공고를 시작으로, 4월 10일 아이디어 공모전 출범식이 열렸다. 5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6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모여 아이디어 수집, 디자인, 재료 수집, 재봉 기초 교육, 제작 지도, 워킹 수업 등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단계별 맞춤 지도를 받았다. 전체 대화방을 통해 제작 과정을 공유하며 관심과 열기가 점차 고조되었고, 열정 가득한 현장이 이어졌다. 특강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각자 다양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작품을 공모전에 출품하였다.



7월 9일 지혜아카데미 위원(하수경, 이윤희, 양정희)과 봉사위원들은 접수된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새활용 공모전’ 심사위원(김인숙 고문, 정경연 고문, 김선옥 고문, 이기향 고문, 남동현 부원장, 원유자 부원장, 하수경 위원)은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위촉되었으며, 김인숙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 결과, 대상은 술 2장을 이용하여 조끼와 바지를 만든 이정호 이사가, 최우수상은 나비 문양 스카프를 조끼로 재활용한 김진 이사와 10년 전 원피스를 손녀 투피스로 재활용한 최혜경 수익사업단장이 수상했다. 특히 최혜경 단장의 손녀 박진현 어린이는 아트쇼 무대에서 감격한 모습으로 인기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가방과 오랜 자켓을 재활용한 황은복 회원이, 장려상은 남성 셔츠를 줄여 조각보로 재활용하고 우산 가방, 스카프 커튼을 출품한 이해남 부원장과 망토 등을 선보인 한미란(다문화) 회원이 수상했다. 재활용 공모전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외숙 고문은 40년 전 드레스를 투피스로 재활용해 특별상을, 김숙애 108인회장은 스카프를 활용한 골프 가운과 패딩 가방으로 아이디어상을 받았다. 또한 정경연 고문의 룽 셔츠, 이윤희 회원의 볼레로 투피스와 뜨개 텀블러 가방, 김현지 회원의 원피스 등 다양한 작품이 선보였다. 모델상의 김옥경 회원과 차밍상의 문윤정 교육팀장은 멋진 모델 라인과 워킹을 선보여 재활용 패션쇼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상 - 이정호(2차)



최우수상 - 김진(2차)
모델 - 이정호(2차)



특별상 - 김외숙(2차)

장려상-이해남(11차)



최우수상 - 최혜경(2차)
모델 - 김옥경(7차), 박진현 어린이



우수상-황은복(11차)



아이디어상 - 김숙애(9차)

한땀 한땀 직접 만들고 모델로 선 아트패션쇼

새활용 아트패션쇼는 이영주 추진위원장의 30년 패션 리더의 경험을 접목하여 다채롭고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 7차 108인 조명숙 하모니카 연주, 김현지, 경민숙의 축가로 오프닝을 한 후, 참가자들은 한땀 한땀 정성 들여 만든 작품을 직접 입고 워킹하며 개성 있는 포즈로 작품의 특성을 알렸고, 관객들의 큰 박수와 응원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아트패션쇼에는 특별히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패션모델 소유지, 애인 같은 여자로 커피 광고를 주름잡았던 모델 윤정이 재능기부로 무대에 서면서 화려한 쇼가 되었다. 작품을 가장 잘 표현한 모델에게 베스트 차밍상, 모델상, 인기상을 선정하였는데, 동네 주민이면서 사무국에서 열심히 활약하는 문윤정 팀장이 뜨거운 환호와 즐거움을 안겨 베스트 모델 차밍상, 멋진 연출로 김옥경 회원이 모델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행사는 BTN 방송으로 송출되었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 세상에 알려졌다. 사후 평가회에서는 행사 기간 외에도 정규 강의를 만들어 지속적인 참여와 관리를 받으면서 지속 가능한 환경 지킴이가 되어 글로벌하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혜로운 여성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고민하며, 지난 뜨거운 여름 재활용 공모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흘린 땀의 결과물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동안 묵묵히 역할을 맡아준 숨은 봉사자들,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보내 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불교여성개발원의 기둥, 1~5차 차수 이야기

끈끈한 정으로 뭉쳐 가장 단합이 잘되지요

여성불자 108인회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 지도자를 발굴하고 여성불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3년 제1차를 시작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홀수 해마다 108인을 선정하여 현재 제11차까지 이어졌으며, 올해에는 제12차 108인이 새롭게 선정될 예정이다. 각 차수가 이어온 발걸음은 오늘날 108인회를 든든히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동시에 여성불자의 위상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어 왔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108인회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각 차수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려 한다. 가을호에서는 제1~5차 차수장을 직접 만나, 각 차수가 남긴 의미 있는 발자취와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보았다.

우리 차수만의 색깔이나 자랑거리를 꼽으신다면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3차 정진희 차수장(이하 정) : 아마 우리 차수가 역대 원장님을 가장 많이 배출한 차수가 아닐까 합니다. 1~3차가 합쳐지기도 했지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원장을 비롯해 다양한 보직을 맡아 불교여성개발원의 발전에 앞장설 수 있었다는 점은 우리 차수의 큰 자부심입니다.

4차 황외숙 차수장(이하 황) : 저희 차수는 인원은 적지만, 가장 굵은 일을 많이 맡아온 차수라고 생각합니다. 바자회에서 기증품을 정리하거나 개발원 행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포트를 하는 등 묵묵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지요.

5차 김지영 차수장(이하 김) : 저희 차수는 가장 단합이 잘되고 끈끈한 차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톡방에 20여 명 정도로 많지 않은 인원이 모여 있지만, 개발원 행사 때는 저희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자랑하지요. 예전에는 저희끼리 버스 한 대를 빌려서 답사를 갈 정도로 참여가 높은 차수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차수 활동이나 의미 있었던 순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 : 올해 6월에 개발원에서 홈커밍데이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원로들이 많으신데, 이런 행사를 통해 함께한 시간을 돌아볼 수 있어서 참 뜻깊었습니다. 반응도 좋아서 연말에 한 번 더 마련할 계획입니다.

황 : 바자회에서 선보이는 떡갈비는 우리 차수의 대표 품목인데, 늘 인기가 많습니다. 덕분에 후원금도 많이 모을 수 있었지요. 워크숍에서는 원유자 선생님과 제가 자작시 낭송과 그대 향한 길 발원문을 낭독했는데 그 시간이 참 특별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진희 차수장



황외숙 차수장



김지영 차수장

김 : 올해 워크숍에서 5차가 '나이야가라-내몸을 살리는 태극권'으로 장기자랑에서 1등을 했습니다. 빨주노초파남보로 티셔츠와 양말을 맞춰 입고, 다 같이 노인자 선생님 동작을 따라했는데 5차의 단합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 정말 뜻깊고 좋았습니다.



1~3차 홈커밍데이

차수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겪으신 어려움이나 고민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정 : 아무래도 가장 오래된 차수이다 보니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이 분들과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황 : 차수장 소임은 1~2년 한 후 회향하면서 다음 분에게 이어져야 하는데, 다들 맡으려 하지 않고 기피하거나 아예 차수 활동이나 본부행사 불참으로 아쉬웠습니다. 108인으로 선정된 분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한 번씩은 임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고로 황외숙 차수장은 7년간 차수장 일을 맡아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다.)

김 : 저희 차수는 중간에 탈퇴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아 계신 분들이 단단하게 재결집해 예전처럼 잘 지내기 위해 함께 애써 주셨습니다. 제가 차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이러한 끈끈함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수장이 되실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나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 : 처음에는 의무적이지만 하다 보면, 자주 만나다 보면, 우정도 생기고 불심도 생기고 좋은 법우를 얻게 되니 열심히 활동해주시길 바랍니다.

황 : 본부와 힘을 합쳐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어가며 소신있게 활동하길 바랍니다.

김 : 차수분들께 한 번씩 안부를 묻고, 행사가 있을 때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연락을 드리며 마음을 나눈다면 참여도 더욱 높아지고 차수의 끈끈함도 깊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1~5차 차수장이 전한 목소리에는 지난 20여 년간의 발자취와 함께 앞으로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108인회가 불교여성개발원의 중심축으로서 차수마다의 경험과 지혜를 이어가며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5차 미술관 나들이

구호 전문 수행자, 부캐는 프로듀서

— 연화사 묘장스님

절에 잘 오지 않는 MZ세대, 메인 트렌드가 없으면서도 누구보다 트렌디한 MZ를 관통한 스님이 있다. 그 스님이 머무는 절, 바로 서울 동대문구 연화사다.

왕실 원찰의 뿌리, 작은 도량의 깊은 역사

서울 회기동의 연화사는 작고 소박하다. 그러나 그 역사는 조선 연산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499년, 연산군의 생모,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폐비 윤씨(제헌왕후 윤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세워진 원찰이다.

이름은 ‘일체중생의 근본자성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청정한 연꽃과 같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연꽃의 청정함과 화생(化生)의 의미를 담아 지어진 절 이름에는, 어머니를 향한 애끓는 효심, 어머니의 영혼을 극락으로 천도하고자 한 아들의 간절함이 서려 있다.

조선시대의 원찰은 왕실 여성들의 비호 아래 존재했고, 왕실의 흥망성쇠와 함께 희로애락을 겪었다. 연화사도 1882년 임오군란 때 소실된 것을 정담스님이 중건했고, 이후 궁인 박씨, 상궁 최씨, 김씨 등이 불사를 이어가 불화가 조성되었다. 작은 절이지만 지금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5점을 보유하고 있다.



중생의 근심을 해결하는 ‘프로듀서 묘(妙)’

묘장스님에게는 ‘부캐’가 있다. 이름하여 ‘프로듀서 묘(妙)’.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 생신 카페》를 열고 〈약사여래부처 밴드블여〉 같은 유틸 있는 굿즈를 만들었다. 《청년밥심》은 연화사 근처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며 몸과 마음을 채워주었다. 이 프로젝트는 연화사에 그치지 않고 대학교 근처의 사찰, 개원사, 상도선원, 홍대선원까지 확산되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 《나는 절로》까지. 비혼과 저출산이 일상이 된 시대에, 중생의 가장 큰 근심을 해결해 주고 있으니, “프로듀서 묘”라는 별칭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약사여래부처 밴드블여〉 굿즈



청년밥심



묘장스님이 네팔의 지진 현장을 방문해 네팔 어린이들에게 천가방을 선물했다. (더프라이스 제공)

본캐는 ‘수행자’이자 ‘구호 전문가’

하지만 화려한 부캐 뒤에 스님의 본래 얼굴은 ‘수행자’이며 ‘구호전문가’다. 불교 수행자로서 묘장스님은 “기도”와 “자비”를 무엇보다 강조한다.

“지금 이 시대, 욕구는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이며 원하는 바가 빨리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 흐름을 잘 활용해서 마음껏 바라며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자비입니다. 혹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이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가피(加被)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를 펴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절한 기도의 길을 안내했다.

재난 현장의 스님

묘장 스님은 불교계 대표 국제구호단체 더프라이스(The Promise)의 이사장이다. 아이티 대지진(2010), 네팔 대지진(2015), 포항 지진(2017), 우크라이나 전쟁(2022), 강릉 산불(2023), 미얀마 대지진(2025)까지- 스님은 늘 현장의 최전선에 있었다. 특히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2023) 당시에 직접 현장에 달려갔는데, 같은 시기에 불교여성개발원에서도 구호금을 보냈었다. 스님은 “탈린 식구가 없어 홀가분하게 현장에 갈 수 있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위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구호 현장에 들어갔다.



묘장스님의 접견실 선향제(善香齋)

“현장에서 멀쩡해 보이는 건물에 베이스캠프를 차렸다가 한밤중 여진에 몸만 빠져나오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아, 이렇게 죽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지장보살 기도를 올렸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수행은 어떤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부처님 탄생계에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 즉 세상은 모두 고통으로 가득하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제구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회기동 연화사에 가면, 우리는 단지 절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스님의 살아 있는 행보를 만나는 것이다. 청년밥심에서 밥을 푸던 모습, 재난 현장에서 흙먼지를 헤치던 모습,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는 미소 짓는 그 따뜻한 눈빛까지. 작은 절이지만, 나도 그 자리에 가서 잠시 머물고 싶다. 🌸

친절하고 열린 불교를 위한 연화사 스튜디오

꿈에도 그리던 영험한 기도처

낙산사 홍련암

언젠가 불교 공부를 오래 해온 친구가 ‘해수관음보살 사찰로 가서 기도하면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말을 하면서 강화 보문사와 여수 향일암, 그리고 낙산사 홍련암(紅蓮庵)이 그곳이라 했다. 그 말에 이끌려 바로 보문사 관음전에 들린 후 낙산사 템플스테이를 신청하였는데 코로나가 터져 가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데 지난 7월 말, 불교여성개발원 제9차 한정화님의 인도로 몇 분이 봉정암에 오른다 하여 함께 나섰다. 43년 전 히말라야원정대 전지훈련에 함께 했던 추억이 새록새록한 설악산, 처음으로 등산복 차림으로 배낭을 메고, 운동화를 신고, 만반의 준비로 백담사에 도착했으나 애꿎은 폭우가 쏟아졌다. 곧바로 봉정암 길이 폐쇄되었다. 하는 수 없이 낙산사로 향하자 나는 속으로 “야호” 함성을 질렀다. “아하! 인연 따라 이렇게 오게 되는구나.”

비 내리는 낙산사. 20여 년 전 온 국민을 허탈하게 한 불의 흔적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산사의 풍경이 드러났다. 사찰 경내는 고요하고, 차실의 풍경도 정다웠다. 특히 해수관음상이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고, 거센 산불도 피해 간 절벽 위의 홍련암에는 파도 소리가 요란했다. 저녁 기도 마치고 쉬었다가 새벽 기도에 동참하며 기도가 연이어 이어졌다. 반나절 동안 세 번의 기도에 동참하니, 기도의 바다에 빠진 듯 왠지 자주 와야 할 곳으로 느껴졌다.





홍련암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도

“왜 이토록 오고 싶었을까.” 낙산사 홍련암. 꿈길에도 막연히 오고 싶었던 곳, 법당 안의 작은 유리문을 통해 파도치는 모습이 보이고 저 멀리 아스라한 수평선이 하얗게 파도를 이루는 곳. 그 옛날 의상대사가 연꽃 타고 오신 관세음보살님을 뵈는 곳에 절을 세운 후 오랫동안 중생의 원을 들어주는 영험한 기도처로 알려진 곳. 오늘도 밤새도록 목탁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홍련암은 관세음보살의 서원이 바다의 무한한 힘과 겹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삶의 인연을 새롭게 맺어준다고 한다. 특히 가족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는 말에, 나는 다섯 봉지의 쌀에 남편과 딸, 사위, 손주들까지 이름 올리고 일년등과 인등, 기와 불사에 두 손을 모았다.

문득 여덟 살 즈음 엄마 손을 잡고 찾은 절의 스님께서 내 팔목에 단주를 끼워주시며 “관세음보살”이라고 자꾸 부르면 좋은 일이 생긴다”던 말씀이 떠오른다. 결혼 후에도 단주를 차고 생각날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염해왔다. 기도라는 생각도, 무엇을 바라는 마음도 없이 그저 습관처럼 관세음보살을 염해왔다. 그리고 <천수경>, <백팔 참회문>, <아미타경>, <금강경> 등 새벽에 찻물 우려놓고 기도해 왔는데 몇 년 전부터 자꾸 기도가 끊어졌다. 불교여성개발원의 금강경 기도 동참도 수면이 불규칙해져서 하차하고 말았지만, 합류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간절하다. 그런데 홍련암을 다녀오고 나서 마치 구름이 걷히듯 정신이 맑아지고 습(習)이 되살아나 아침 여섯 시면 일어나 가사체 금강경을 읽고 사경을 하게 되었다. 언젠가는 새벽 다섯 시에 금강경을 읽을 것이다.

기도는 나를 찾는 길

누군가 내게 “근래에 들어 가장 잘한 일, 혹은 좋은 일이 무엇이야”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불교여성개발원의 108인이 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이다.

그들은 매일 기도하고, 때때로 사찰을 순례하며 마음을 닦고, 작은 행이라도 진심을 다하는 등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치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들을 닮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했고, 작은 일이라도 주어진다면 군말 없이 수행했다. 지금은 차법을 보여주는 일이 구실이 되어 명상리더 십센타장을 맡아 차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

이제 불교여성개발원은 어엿한 청운동의 건물주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인 보시의 마음은 가히 놀라웠다. 또한 여러 원장님과 센터 활동을 통해 다져진 다년간의 노하우가 제대로 발휘되고, 원하는 바대로 흘러가는 것이 역시 기도 덕분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2022년 2월 4일, 포교원과의 갈등으로 동요가 심했던 시기에 김선옥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포교원과의 갈등에 대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교원과 원만하게 협의하고 우리의 숙원인 광장 건립을 위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리산 선림사 보우 법사께 논의하니 <자비참법> 기도를 권했습니다. 나와 박원자님, 그리고 정대련 현 원장이 앞장서서 새벽 5시에 100일간 기도하였습니다. 2차 백일기도는 <법성계> 사경, 3차 백일기도는 <반야심경> 사경, 4차 백일기로부터 <금강경> 읽기였습니다. 벌써 천 이백여 일, 꾸준히 동참자들이 늘고 있고, 매일 천 원씩 보시하는 동참금은 지혜장학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도 방법에 대해서 조정숙 국장은 “새벽 4시 40분 경이면 일어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대련 원장님의 ‘기도 시작합니다’란 알림이 올라오면 ‘동참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기도합니다. <칠정례>, <반야심경>, <천수경>, <법성계> 등 각자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라고 설명했다.

“왜 기도합니까”란 질문에 답한 김선옥 원장의 말씀이 귓가에 선명하다. “기도는 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확실해지고 내가 보여집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마음속의 불편한 것을 털어내고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나날이 새롭습니다. 같은 경을 읽어도 그 뜻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



아내와 함께 대원사에서

명상과 차담으로 채운 특별한 하루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던 즈음 <행복한 나, 건강한 가족을 위한 부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가평 대원사로 향했다.

7월의 무더운 폭서기가 계속되는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산속 사찰에 들어서자 한결 시원한 공기가 청량했다. 방을 배정받고 템플스테이북으로 갈아입은 뒤, 입재식과 함께 스님의 사찰 안내가 시작되었다. 산비탈을 따라 지어진 사찰 배치 방식이라 가파른 이동 동선으로 참가자들이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계곡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은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청정함과 평온함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영험하기로 유명한 동굴 약사전과 익살스럽고 친근한 표정의 오백나한전은 특별했다.

쿠킹클래스로 시작해 명상요가로 마무리하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쿠킹클래스였다.

연잎에 밥과 견과류를 곁들 담아 정성껏 싸는 연잎밥 만들기과 즉석에서 감자를 갈아 노릇하게 부쳐내는 감자전을 함께 만들었다. 부부가 합심해 직접 만든 음식으로 저녁 공양을 하니 한층 더 정겹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식사 후에는 범종각에서 타종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 명씩 종을 쳐 보는 체험을 하였다.

저녁 예불 후, 주지 스님과의 차담 시간에는 은은한 향의 연잎 차를 마시며 부부로서의 인연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하루의 마무리로 부부명상요가를 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다.

수행 속에서 더 깊어진 부부 도반으로서의 다짐

5시부터 시작된 새벽 예불 시간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합장하는 순간,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듯했다. 아침 공양 후에는 108배를 하며 108염주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다. 절을 할 때마다 마음속 번뇌를 내려놓는 듯했고, 손 끝에서 하나씩 완성되는 염주 알이 작은 성취감과 함께 깊은 의미를 전해주었다.

짧지만 알찬 1박 2일이었다. 자연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서로의 소중함과 마음을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감사와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 앞으로 부부 도반이 되어 함께 수행하며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해 본다.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알차게 진행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린다.

함께 한 모든 도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함께하시기를 발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부부 템플스테이를 회향한다. 🙏



임강사에서 다시 만난 동자승 가족

하늘과 바람과 별과 아이들

낙동강 줄기 아래 위치한 안동 임강사의 밤은 마치 다른 세상이었다. 산사의 고요와 별빛은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안았다. 도심에서의 생활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엄마의 품과 같은 절이었다.

임강사에서 만난 건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된 ‘2023 동자승 가족’이었다. 언제 만나도 즐겁고, 반가운 아이들은 절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았다. 도시에서는 늘 빠듯한 일정 속에 바쁘게 지내던 아이들이었지만, 산사에서는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로이 웃고 달렸다. 다섯 명의 아이가 서로 손을 맞잡고 뛰어다닐 때마다 퍼지는 웃음소리가 산사의 돌담을 타고 메아리칠 때, 어른들의 마음에도 미소가 번졌다.

별빛에 담은 기도

밤이 되자, 하늘 가득한 별들이 아이들의 눈동자에 내려앉았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별들의 천국이 펼쳐진 것이다. 북두칠성이 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아이들은 서로를 붙잡으며 “저 별이 길을 알려주는 별이라며?” 하고 속삭였다. 쏟아질 듯한 밤하늘에 눈을 몇 번이나 비벼대는 아이들을 지



켜보는 어른들의 마음에도 동심이 차오르는 듯했다.

“저 아이들의 내일이 저 별처럼 반짝이기를...”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모두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가족이 함께 누린 진정한 ‘쉼’

임강사 주지로 계신 지현스님과의 차담 시간, 아이들의 미래 이야기가 오갔다. 지현스님은 조계사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셨고, 그 인연으로 이번 방문도 성사됐다. 스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던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와락 안기는 진풍경을 자아내기도 했다.

“시골 마을에서는 어린 아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찾아와준 다섯 아이들이 귀하고 소중한지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님의 귀한 말씀에 도시에서 쌓아온 무거운 피로가 조금씩 풀려나가고, 마음속에 단단히 얹혀 있던 걱정들이 풀려내려갔다. 낙동강을 내려다보며 차분히 숨을 고르는 순간, 그동안 잊고 있던 ‘쉼’의 의미가 다시 다가왔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웃는 동안, 부모들은 오랜만에 자신들의 마음을 돌보고 있었

다. 그것은 분명 또 하나의 치유였다.

마음속에 남긴 별빛

야영하며 강가에서 함께한 시간도 잊을 수 없다.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리며 나누던 대화, 아이들이 별빛을 쫓아다니며 뛰놀던 모습, 그리고 강물 위로 반짝이던 아이들의 눈동자. 우리는 서로 다른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처럼 크게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2박 3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머무르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속에 별 하나씩을 남겼다. 아이들은 별빛처럼 자유로웠고, 부모는 그 빛을 오래 지켜줄 약속을 가슴에 새겼다. 아이들의 눈 속에도, 부모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도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을 것이다. 🌠



75세에 음식디미방 집필한 여중군자 장계향

이 책을 눈이 이리 어두운데 썼으니...

1598년(선조 31년) 안동에서 장흥효의 딸로 태어난 장계향은 1680년(숙종 6년) 경북 영양에서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존경받는 사대부의 금지옥엽 외동딸로 태어나 아버지의 제자와 혼인하여 대갓집 마님으로 살며 10남매를 키워내고 <음식디미방>이라는 한글 요리책까지 저술하며 여든이 넘게 장수한 장계향의 인생을 ‘굴’로만 보면 그야말로 꽃길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대갓집 마님으로 10남매 키우며 친정도 보살펴

19살이 되던 해, 장계향은 석계 이시명과 혼인한다. 장흥효의 제자였던 이시명은 장계향보다 8살이 많았으며 사별한 부인 사이에서 1남 1녀를 둔 홀아비였다. 한마디로 장계향이 밑지는 혼인이었다. 하지만 덕분에 장계향은 딸로도, 아내로도, 어머니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국가지정표준영형 91호

시집은 지 2년째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무남독녀였던 장계향은 남편의 허락을 구하여 친정에 가서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재혼을 주선한 후 돌아온다. 장흥효와 새 아내와의 사이에서 연달아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다. 친정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 싶을 무렵, 장흥효가 세상을 떠났다. 젓먹이를 포함하여 자식보다 어린 네 명

의 동생들과 열 살 아래의 계모까지 보살펴야 했을 때, 장계향의 나이는 겨우 35살에 불과했다.

친정 식구들은 장계향이 사는 시택 근처로 이사했고 그녀는 계모와 동생들을 끝까지 돌보았다. 물론 남편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시명은 대가족을 건사하고 쉴 틈 없이 살림을 꾸리며 전처가 남긴 1남 1녀를 포함하여 10남매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낸 아내를 신뢰하고 사랑했다. 병자호란 이후 과거를 포기한 채 은둔한 이시명에게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라’고 설득하여 그가 후학 양성을 지표로 삼도록 도운 사람도 장계향이었다.

순한글로 쓴 사대부가의 음식 조리법

이처럼 50년 가까이 한시도 쉴 틈이 없었던 장계향은 무려 75세가 되던 해, 『규곤시의방(閨壺是議方)』을 집필한다. 제목은 한문으로 지었으나 내용은 순한글로 쓴 본문 첫머리에는 ‘음식디미방’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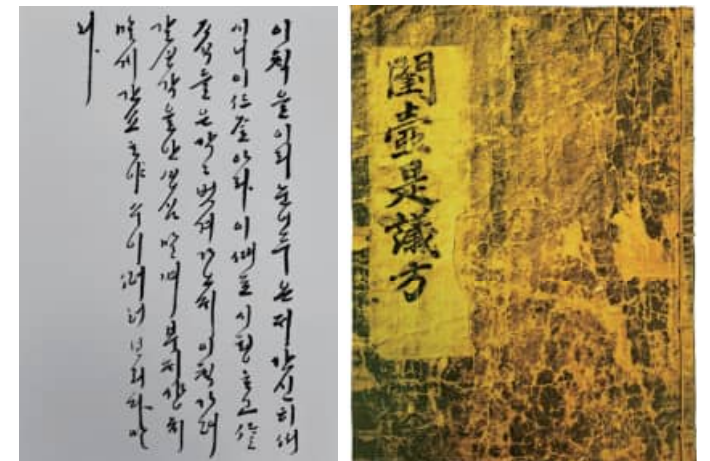
146가지에 달하는 사대부가의 음식 조리법을 재료, 조리방식 등으로 분류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음식디미방>은 한글로 된 최초의 한글 ‘요리 전문 서적’이자 장계향의 일생을 담은 책이다.

장계향이 <음식디미방> 서두에 쓴 “이 책을 이리 눈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라는 글은 100세 시대인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디미방>을 토대로 전통 음식을 맛보며,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장계향에절관



석계고택



한글로 쓴 <음식디미방> 서문과 장계향이 집필한 「규곤시의방」



종이꽃으로 피어난 부처님

안정사 땅설법 지화의 세계

땅설법이란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하는 법문'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생계로 바빠 불교 공부를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위하여 과거에 춤과 노래, 공연을 통해 역동적으로 불법을 전파하는 고도의 전문적 불교 교육 방식이었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에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이러한 불교 포교 방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고, 그 덕분에 불교는 강물처럼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 땅설법을 한자로는 속강(俗講)이라고 불렀다. 이 방식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먹혔는지 오늘날 중국의 소설과 연극의 기원이 바로 이 불교 '속강'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은 학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땅설법을 잘 해내기 위해서 이를 진행하는 스님들은 경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기본이고 법문을 듣는 군중의 성향이나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었다. 승단에서는 당연히 이런 스님들을 배양하기 위해 고도의 교육 체계를 갖고 인재를 단련시켰다. 오늘날 '엄숙한' 불교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못 볼 따름일 뿐, 동아시아 문화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속강 전문가 스님들에 대한 역사는 낯선 일이 아니다.

지화의 교육적 의미와 안정사 전승

땅설법에 쓰이는 종이꽃 불교 지화(꾸미는 목적 위주의 지화는 '紙花'로, 경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화는 '紙華'로 표기)는 다른 나라에서는 간단하고 단순한 몇 가지만 보인다. 설사 그곳에서도 지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불교



돈황 막고굴에서 발견된
9~10세기 지화.
(사진출처: 대영박물관)

속강에 이용되었다는 증거도 희박하다. 반면, 한국의 불교 지화는 형태와 종류 면에서 다채로울 뿐 아니라, 중요한 교육 도구로 이용했음이 안정사 지화를 통해 드러난다.

안정사 지화 전시회가 지난 세기 국가 폭력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넋을 기리기 위해 '재, 꽃잎, 풀림의 의례'라는 제목으로 6월 재개관한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8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렸다. 이 전시회에서는 총 100종의 다양한 지화가 전시되었다. 다여스님은 "불교 지화는 꽃마다 사상과 의미를 담고 있어 꽃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다"며, 희생된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알리고 더 큰 의미로 승화하자"는 의미에서 지화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나온 모든 지화는 삼척 안정사 다여스님 한 분의 손에서 나온 작품이다. 스님은 과거 안정사에 주석하시던 비구니 운성 노스님께 이들 지화를 배웠다고 한다. 운성스님은 남북 분단 전 금강산 유점사에서 공양물 고임과 지화를 담당하셨으며, 분단 후 남하하여 안정사에 주석하시다 입적하셨다.

지난 몇십 년간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이 급변하면서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귀중한 불교 민속 상당수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삼척 안정사는 교통신로 발달하지 못했던 까닭에 외부와 빈번한 접촉이 없어 오히려 풍부한 불교 민속이 고스란히 전승될 수 있었다. 다여스님이 이처럼 많은 종류의 지화 만드는 법을 기억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할 수 있는데, 정작 스님은 그때는 농촌에 사람이 많아서 신도들도 많았으므로 지화를 쓸 일이 많아 배운다는 마음보다는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지화를 많이 접했는데, 그 덕분에 저절로 방법을 익혔다고 한다.

경전 속 지화의 상징 세계

불교 경전과 관련된 많은 지화 중 대표적인 네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 반야화(般若華) - 공(空)의 꽃

첫 번째로 살펴볼 지화는 불자는 물론 비종교인에게도 익숙한 《반야심경》 등 반야부 계통의 법문을 설법할 때 쓰는 꽃이다. '반야화(般若華)', 혹은 '공화(空華)'라고도 하는데, 다여스님은 이 꽃의 의미를 윗대 어른들에게 다음과 같이 들었다고 한다.

반야사상의 핵심은 공(空) 사상이다. 백 마디 말이 아닌, 한 송이 꽃을 통해 '공'의 의미를 드러낸다. 둥근 원형의 가운데를 텅 비워 '공'을 표현한다. '반야'를 '보살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수행하는 사람이 반야가 기본이 되어야 비로소 불보살이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둥



반야화(般若華), 공화(空華)

큰 텅 빈 공의 형상 위에 평평한 둥근 자리는 불보살의 좌대이다. 누구든지 반야를 체득하여 이 좌대 위에 불보살로서 앉게 되기를 바라는 염원도 함께 담겨 있다.

따라서 반야화는 공(空)을 타고 앉아 선정에 든 보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작과정을 보면 이어붙임 없이 오직 한 장의 종이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이를 통해서 만드는 과정에도 불이(不二) 정신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색도 정결한 흰색을 쓰는데,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을 드러낸다고 한다.

● 금바라화 – 염화미소의 꽃

두 번째로 소개할 경전의 꽃은 《대범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에 등장하는 ‘금바라화’이다. 선종의 기원이 되는 꽃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꽃을 들어보이자 아무도 그 의미를 몰라 고개만 가우뚱거리고 있는데 오직 가섭만이 빙그레 웃었다는 ‘염화미소’의 꽃이다. 해당 부분의 경전 내용을 살펴보자.



대범천왕은 여러 권속들을 거느리고 와서, 세존께 금바라화를 바쳤다. 그들은 각각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한 뒤,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바쳐진 금색바라화(金色婆羅華)를 손에 드시고 눈을 깜박이며 눈썹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셨다. 이때 대중은 모두 침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으

나, 오직 가섭만이 미소를 지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내게는 바른 법의 안장(正法眼藏)과 열반의 묘심(涅槃妙心)이 있으니, 이제 그대에게 맡기노라. 그대는 이를 잘 보전하여 끊어짐 없이 이어가라.” 가섭은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한 뒤 물러갔다.

● 화엄법계화(華嚴法階華) – 수행의 계위

세 번째로 살펴볼 꽃은 ‘화엄법계화(華嚴法階華)’이다. 이 꽃은 《화엄경》의 수행의 계위, 즉 수행의 단계를 드러내는 꽃이다. 수행자가 처음 보리심을 발한 후, 수행의 공덕을 쌓아 부처가 되기까지 거치는 과정을 한 송이 꽃으로 표현하였다. 《화엄경》은 수행자가 깨달음을



위: ‘염화미소, 이심전심’ 선종의 꽃 금바라화
 옆: 수행의 단계를 드러내는 화엄법계화(華嚴法階華)

얻어가는 단계를 십신(十信),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 십지(十地), 등각(等覺), 묘각(妙覺)의 52위로 나누었다. 화엄법계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삭처럼 사방으로 드리워진 다섯 줄기 위에 동그랗게 첩첩이 끼워져 있는 52개의 동그라미가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52위를 의미한다. 또한 하늘을 향해 포개어 쌓아 올린 링은 《화엄경》의 각 품(品)을 표현한 것이라고 윗대 어른 스님들께 들었다고 한다.

링이 포개어진 맨 위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공처럼 둥근 것은 깨달음의 열매인 불과(佛果)이다. 불도(佛道)를 닦아 마침내 성불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불과 위 맨 꼭대기의 문양은 일월문으로 이 공부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것임을 드러낸다. 이 문양은 불보살님의 상호 제작 때 보관(寶冠)에도 나타나는 문양이다. 화엄법계화는 화엄경을 바탕으로 하는 불공 법회에 진설하는 지화이다. 땅설법 지화에는 이 외에도 화엄경의 해당 계위를 드러내는 꽃도 있다.

● 금강법계대일여래화(金剛法界大日如來華) – 불교 우주의 꽃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금강법계대일여래화(金剛法界大日如來華)’이다. 이 꽃은 밀교에서 전하는 특별한 불교 장엄이다. 이 명칭은 《대비로자나경(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즉 태장계만다라의 근본 경전 속에 나오는 금강법계궁(金剛法界宮)에서 비롯되었다. 이곳은 대일여래(毘盧遮那佛, 비로자나불)가 머물며 설법하는 법계의 중심 궁전으로 묘사된다.

형태로는 아래에 정사각형 기단이 있고, 그 위에 원형의 구조물이 3층으로 되어 있다. 그 위에는 흰 연꽃잎 모양의 링이 13층으로 둘러싸여 있고, 맨 꼭대기에는 불꽃 안에 해와 달을 넣기도 하며, 때로는 불과를 얹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태장계만다라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중심부의 법계궁은 대일여래의 자리를, 연꽃 모양 링들은 법계가 끝없이 펼쳐지는 여러 권역(院, 圓輪)을 나타낸다. 금강법계대일여래화는 불교 우주를 한 송이 거대한 꽃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단지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행자에게 “우리의 삶 또한 법계의 꽃 속에 피어난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해준다. 전시장에서 만난 일본 아이치대 편무영 교수는 이와 유사한 도상이 인도, 티벳, 영국, 심지어 바티칸에서도 발견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에 매우 놀라워했다.

이처럼 땅설법에 진설되는 지화는 우리나라 불교 지화의 유구한 전통과 우수성을 잘 담아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보여준 총 100가지의 지화 중에는 이 외에도 경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화가 수십 종 있지만 지면 관계상 이상 몇 가지만 소개하였다. 🌸



밀교에서 전하는 특별한 불교 장엄, 금강법계대일여래화

나의 배움터 우리의 놀이터

오늘도 풀가동, 여성광장 9 to 6

청운동의 하루를 시작하다

아침 9시 문이 열리자마자 여성광장의 사무국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필자가 도착한 오전 10시 30분 무렵, 결재 서류는 이미 사무국과 원장실을 두 차례나 오간 뒤였다. 전화벨은 쉼 없이 울렸고, 11시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각 책상에서는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분주한 업무 중에도 아침부터 장착된 직원들의 미소는 그대로였다. 사무국의 아침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월요일 오전 11시는 사무국 회의시간이다. 정대련 원장, 조정숙 사무국장, 김혜령 총무팀장, 문운정 연구교육팀장이 1층 회의실에 모여, 이번 주 진행될 사업에 대한 팀별 보고와 논의를 이어갔다. 기관 운영 방향, 교육 프로그램, 재정 현황 등이 꼼꼼하게 검토되며, 회의실은 진지한 토론장이 되었다.



짧은 숨 고르기 점심 식사 후, 오후의 시작

회의를 마치고자 어느새 시간은 12시,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다. 사무국 식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원이 함께 회식을 한다. 오늘의 메뉴는 불교여성개발원 근처의 따끈한 풍면칼국수였다. 오전의 분주함에서 벗어나는 것도 잠시, 점심시간 휴식의 여유는 오래 가지 않았다. 사무국으로 서둘러 돌아온 직원들은 곧이어 진행될 오후 수업 준비와 회원 맞이로 다시 분주해졌다.

부처님 상담법 심화과정 수업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먼저 도착한 회원들이 반갑게 만나 원장실 앞 둥근 테이블에 앉아 서로의 근황에 대해 답소를 나누었다. 사무국 3인의 책상 위에 놓인 각각의 전화는 회원들과 관련 업체들의 문의로 쉼 없이 울렸고, 일정 조율, 물품 조달, 회원 동정 등 다양한 내용의 문답이 동시에 이어



지며 여성광장의 시계는 세 배로 빨리 돌아가는 듯했다.

배움의 시간, 특강을 위한 준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2층 지혜실에서 부처님 상담법 심화과정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문운정 연구교육팀장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지혜실 탕비실에 대기하며 상황을 살폈고, 원장은 수강자로 참여하며 회원들과 함께 의미를 공유했다. 20명 가까운 수강회원들은 백경임 교수의 부처님 상담법과 간화선 강의에 몰입하며 진지한 태도로 서로 토론하며 배움의 의미를 밝혀가고 있었다.

2층 지혜실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무국장과 총무팀장은 9월 10일 예정된 <티벳 사자의 서> 강연 장소 섭외를 위해 효자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주민센터 3층 강당의 수용 가능 인원과 책상과 마이크 등 장비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의 여러 측면을 핸드폰 사진으로 담으며, 강연에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5시 이후, 남은 과제와 결재로 바쁜 마무리

오후 4시, 부처님의 상담법 수업이 종료되자, 강연을 마치고 교수님과 명상리더십센터 임원, 그리고 수강회원들이 사무실로 내려와 강의 관련 이야기를 나누거나, 기타 여성불자108인 관련 활동, 추석 대비 수익사업 물품 등 다양한 대화와 활동을 이어갔다.

부처님의 상담법 수업팀이 거의 떠나고, 사무국 시계는 다섯 시를 넘어 여섯 시를 향해가는데, 하루의 일정은 멈추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시니어들의 AI 그림책 만들기' 사업에서 마무리 안된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몇몇 시니어 회원들이 가져온 원고를 문운정 팀장과 함께 검토하며, AI 이미지가 머릿속 구상대로 구현되지 않아 답답해하면서도 디테일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집중했다. 한편, 원장실과 로비에서는 사무국장, 총무팀장, 원장이 분주히 오가며 결재 서류들을 주고받았다. 단순히 도장을 찍는 절차가 아니라, 서류 한 장 한 장의 내용을 설명하고 꼼꼼히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수화기 너머로 문운정 팀장의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컴퓨터 켜어?"라는 말에 사무실은 잠시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 웃음 뒤에는 엄마의 업무 끝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와 단번에 끝나지 않는 업무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는 엄마의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6시, 여성광장의 공식적인 하루는 마무리되었지만, 광장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퇴근하지 못한 이들의 책상 위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손길이 남아 있었다. 월요일 9 to 6, 바쁜 하루를 밀착 취재하며 지켜본 오늘의 기록은, 불교여성개발원의 내일을 향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



○ 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개최

7월 10일과 9월 10일 두 차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7월 회의에서는 제12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을 앞두고 신심 있는 여성불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이 각별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가을 사찰순례를 대구·경북 회원들과 연계해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봉중고등학교 여름 수련회와 관련해 김인숙 고문이 학생 전원에게 도미노피자 한 판씩을 후원하기로 하였다. 8월은 여름 휴가로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으며, 9월 회의는 108인회 차수 임원회의와 함께 확대 운영위원회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11월 22일 열릴 '창립 25주년 기념식' 준비를 비롯해 '정목스님과 함께하는 영 108 가족나들이', '준한스님 초청 법회', 불교여성개발원 3층 갤러리 대관 건 등을 심의하였다. 108인회는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에게 식혜 1병씩을 선물로 전달하였다.



○ 정대련 원장, 저스트비 흥대선원 개원식 참석

9월 6일 정대련 원장은 저스트비 흥대선원 개원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불교여성개발원 수행기도 1200일(금강경 독송 기도 700일) 회향 및 13차 백일 기도 입재

8월 21일과 22일, 금강경 기도 동참자 9명은 선림사를 방문하여 수행기도 1200일 회향과 1300일 기도 입재에 함께하였다. 보우법사님은 전국에서 전법과 교화를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교여성개발원의 기도 동참자들을 살뜰히 챙기며, 매일 새벽 5시 기도 시작을 알리는 대화방을 관리하고, 회향일마다 매번 정성스러운 공양을 마련해 주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수행기도 13차(금강경독송기도 8차) 백일 기도는 8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함께 금강경 기도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행정안전부 공익사업 강의 종료

7월 30일, 행정안전부 공익사업 「시니어 지혜+AI 상상: 그림책으로 만나다」는 정기강좌 10회와 보충강좌 6회로 종료되었다. 수강생 26명은 “AI로 그림책을 만들며 뜨거운 여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남겼으며, 이 과정을 위해 애쓴 이지선 강사와 사무국 문운정 연구교육팀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 강원지원

강원지원에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월1회 원주교도소 교화 법회, 정기법회 그리고 복지관 독거노인 배식봉사를 실시하였다.



○ 대구, 경북(대경) 지역 모임

7월 8일 만촌동 보림사에서 초파일, 바자회 등으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회원들을 만나 차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설악산 봉정암 참배

7월 16일과 17일, 1박 2일 동안 한정화(9차 108인) 전 사자산 법흥사 신도회장의 인솔로 설악산 백담사와 낙산사 홍련암을 참배하였다. 지난 6월 9일 미술전시회 오픈식에 참석한 한정화 회장은 봉정암 신도회장을 역임한 인연으로, 불자라면 최소 세 번은 봉정암을 다녀와야 한다는 경험을 나누며 참배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7월에 2박 3일 일정으로 봉정암 참배를 계획하였으나, 폭우로 오르지 못하고 하안거 중인 백담사 무문관

스님들께 공양물을 올린 뒤 총무스님과 차담을 나누었다. 이어 낙산사로 이동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홍련암에서 기도하였다.

8월 15일과 16일에는 한정화 회장(9차 108인), 윤정로 부원장, 이영미 지혜아카데미 대표, 김숙애 108인회 부회장, 조정숙 사무국장 등 5명이 마침내 봉정암을 참배하고 본원 주지스님과 차담을 나누었다.



○ 고등동복지회관

월 1회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개선과 인생 회고를 위한 '기억회상 미술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콜라주', '감정 색깔 칠하기', '만다라 작품', '데칼코마니' 등 매주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공감을 전문 상담가와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최한 시화전에 'AI 보미 로봇' 내용으로 고등동복지회관 문해교실 김기순 어르신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기억회상 미술 집단 프로그램 만다라

○ 도봉방학가람어린이집

양현정 원장 후임으로 신입 이지혜 원장이 도봉방학가람어린이집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8월 말에는 <안녕! 여름-흠뻑쇼> 행사를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물과 어우러진 다양한 퍼포먼스와 놀이를 즐기며 여름의 끝자락을 물방울처럼 반짝이는 추억으로 남기고 시원한 하루를 보냈다.



○ 연대사업 성평등불교연대

8월 23일, 성평등불교연대(성불연대)는 태고종 본찰 법륜사에서 제9회 마하 마야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공동대표단체인 (사)지혜로운여성의 정대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구니, 우바이, 비구, 우바새 등 불교계 모두를 위한 성평등 문화 창달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김명희) 주관으로 육법공양 의식이 여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이기향 고문이 육법공양 팀 의상 준비과정에 도움을 주어 행사의 장엄함을 더했다. 또한 위즈덤합창단 단원들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당신이 오시는 날'과 '연꽃예찬'을 선보이며 무대를 빛냈다.



○ 명상리더십센터와 함께한 경북 영양 장계향 체험관, 전통 한옥 숙박 체험의 웰니스 여행

7월 22~23일,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을 다녀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디미방』을 토대로 조성한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전통 음식을 맛보며, 책 속에 담긴 우리 민족 고유의 “맛”과 “멋”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저녁에는 고즈넉한 전통 한옥에 머물며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을 감상했다.

이튿날 새벽에는 안개 자욱한 달팽이 공원 길을 맨발로 느리게 걸으며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감각에 집중하며 명상을 했다. 이어진 다도 체험에서는 차를 정성스럽게 우려 색, 향, 미, 오감을 알아차리고 음미하며, 차 한잔의 여유로 평소 쌓였던 심신의 피로가 새털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편안함을 느꼈다. 우리 불교여성개발원 7차108인 최희영 이사가 인도하는 소리 명상은 옛 조상들의 시조창 정가와 마음의 울림 시 낭송까지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즐겁고 신나는 행복 바이러스를 듬뿍 안고 돌아온 이번 여정은, 힐링을 넘어선 웰니스 여행이었다.

마지막으로 로컬 푸드 매장을 방문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구입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짐에 어깨가 아팠지만, 그조차 잊은 채 서울로 돌아왔다. 시간은 쉼 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긴 여운이 머물렀다.

● 글/김윤옥_7차 108인



○ 명상리더십센터

8월 25일(~11월 3일)에는 백경임 교수의 “부처님의 상담법 심화과정”을 시작하였다. 수강생 22명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수업 10분 전 입정으로 시작하여, 간화선을 핵심으로 하는 심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9월 8일부터는(~10월 27일) 매주 1회(총 6회) 대한불교진흥원 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불교여성개발원 육법공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고요 속의 향기 - 행다 수행과 선 치유”를 주제로 하여, 12명이 육법공양의 의미를 새기며 명상 수행을 진행한다.



○ 여성불자108인회 임원회의

7월 2일, 자비실에서 108인회 7월 임원회의가 열렸다. 추계 사찰순례 일정과 장소 협의, 제12차 여성불자 108인 추천 독려, 새활용 공모전 및 아트패션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름 휴가로 8월 임원회의는 열리지 않았으며, 9월에는 개발원 운영위원회와 함께 확대 운영위원회로 진행하였다. 9월 6일부터 22일까지 추석 맞이 온라인 바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여성불자108인회 차수 만남의 날

1·2·3차 108인회는 6월 10일(화) 자비실에서 홈커밍데이를 개최하고 파티를 열어 단합대회를 가졌다. 역대 원장이 대부분 포함된 1~3차 차수인 만큼 만남의 의미가 더욱 깊어, 이후 차수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7차 108인회는 6월 26일 학동역 1번 출구 인근 ‘바다양퐁이동태탕’에서 단합대회를 열었으며, 9차 108인회는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양평 상원사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진행하였다.

또한 10차 108인회는 7월 26일 서울역사 내 4층 ‘서울리에’에서 만남을 가졌고, 11차 108인회는 7월 3일 조계사 RMSC 카페 ‘아로파’에서 상반기 모임을 열었다.



○ 가족지원센터

7월 5일부터 6일까지 가평 대원사에서 진행된 부부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19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명상요가, 108배 염주 만들기, 부부 쿠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찬 시간을 보냈으며, 대원사 보인 회주스님을 친견하고 차담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가족지원센터 후원자를 발굴하여 고봉중고등학교 불교반 학생들을 위한 법회와 프로그램 운영에 일부 경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9월부터는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재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봉사하고 있는 교정교화센터와 프로그램 교류 및 협조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교정교화센터

8월 4일, 김인숙 고문이 제작·판매한 ‘부처님 주얼리’ 수익금과 홍라희 관장(리움미술관 명예관장, 4차108인)의 특별후원금으로, 불교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센터장 양현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봉중고등학교(구 서울소년원)에 도미노피자 포테이토 라지 240판(학생 210명, 교직원 30명, 1인 1판)과 콜라 240병을 보시하였다. 당일 김인숙 고문은 교직원들에게 주얼리 50개를 추가 후원하였으며, 정대련 원장, 남동현 부원장, 양현정 센터장, 조정숙 사무국장이 참석, 전달하였다. 큰 보시금으로 불교여성개발원을 빛내주신 홍라희 관장과 김인숙 고문, 그리고 불상 주얼리를 구매해주신 회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다문화행복가족센터

8월 10일, 마포 석불사에서 사시예불 시간에 맞추어 정기법회를 진행하였다. 석불사에서는 불교여성개발원 다문화가족이 참석하는 자리라 하여 특별히 정성스럽게 공양을 마련해 따뜻하게 환영하였다. 9월 법회는 석불사에서 주최하는 ‘한강뷰 가을 음악회’ 참석으로 대신하기로 하였다.



○ 미술심리상담 중강

7월 19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미술심리상담 수업을 중강하였다. 13명의 수강생들은 평소 쉽지 않은 깊은 내면 속 마음을 열어 서로 나누며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즐겁고 푸짐한 중강 파티를 준비하여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 불교여성연구소

8월 27일 불교여성연구소(소장 김선숙, 5차108인)는 제 2차 “지혜를 나누는 당신이 아름다워, 응원한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연구소 소장의 불교이론 강의와 개발원 회원들의 다양하고 귀한 지혜나눔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불교 공부: 오온(색수상행식)과 마음의 구조, 수행에서 정신과 물질의 구별을 통한 무아 통찰, 체크리스트 점검과 토론
- <지혜 나눔 발표>
 1. 고은자(평택남부노인복지관 관장, 10차) : 내가 사랑하는 애송시
 2. 이해남(상해한글학교 설립자, 11차) : 중국 속 비구니 율사 대우 대중사스님
 3. 김지영(前, 명상리더십센터 센터장, 5차) : 차와의 인연
 4. 김선숙(마음의 과학연구소, 5차) : 알려지지 않은 베이킹 소다와 銀용액(銀물)의 신묘한 효능
 5. 오현숙(前,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간호총괄팀장, 2차) : 내 몸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방법

○ 생명존중운동본부

9월 13일 이웃 궁정교회의 요청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등, 21명의 상담사들이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 지혜아카데미

6월 26일 진행된 아카데미 4강에서는 박정희 6차 108인의 <경전 속의 부처님 32상 80종호>를 주제로 하여 부처님의 몸에 갖춘 서른두 가지의 독특한 상호와 부처님의 몸에 갖추어져 있는 신묘하고 아름다운 여든 가지 상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8월 26일 6강은 전영숙 8차 108인의 <한국불교 지화의 놀라운 세계> 강좌로 진행되었다. 지화는 한지에 천연 염색을 하여 카다란 한 장을 자르지 않고 겹겹이 접으며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하고 사바세계 발원을 담아 불교 의식에 올린 땅설법의 도구로서, 최근 그 의미가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 새활용공모전 및 아트패션쇼

제3회 새활용 공모전 전시회가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개발원 1층 마하실과 바라밀실에서 열렸다. 종로구청의 지원과 함께 새활용 공모전에는 총 22점이 출품되었으며, 작품 판매 수익과 기부금을 합해 약 185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새활용 작품을 출품한 회원들(시니어 14명과 주니어 1명)이 아트패션쇼에 모델로서 직접 참여하여 더욱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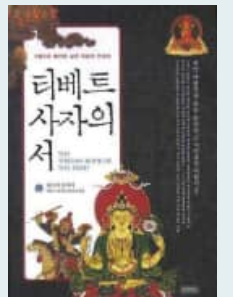
○ 위즈덤합창단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지혜실에서 김양희 지휘자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23일 마하 마야 페스티벌 축하공연에 이어, 9월 13일에는 포천 흥봉사 ‘철불 제자리 모시기 및 헌공다례’ 문화축제에서 축하 음성공양을 올렸다.



○ 날란다독서모임(반장 전영숙, 8차 108인)

10월 22일 여주 성혈사 송학스님을 모시고 <티베트 사자의 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 수익사업단

고춧가루 출하철을 맞이하여 유기농 고춧가루를 판매하고, 9월 20일 추석 음식에 필요한 맛간장을 만들어 추석 바자 품목으로 제공하였다.



○ 사기순(4차 108인)

8월 28일 법보신문에 “지렁이의 죽음과 노란봉투법”이란 제하에 시론을 기고하였다.



○ 오기남(10차 108인)

6월 22일 불광사 불광법회 선학워크숍에 강사로 초청받아 “건강수명늘이기-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한방요법”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불광법회 선학은 법등이라는 조직의 대표인 명등을 거친 리더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 이영미(6차 108인)

7월 2일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1층 그랜드판에서 열린 제7회 한류미술대전, 제6회 한류문화원 특별초대전 시상식에서 옷칠화 ‘사랑의 메아리’ 작품으로 한류미술대전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성남 데일이 아트 스페이스 ‘우주와의 소통2025 곱슬Lee의 옷, 빛 Art전시회’를 가졌다.



○ 이현자(11차 108인)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 사라와강에서 개최한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석하여 민화작가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 문화를 알리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이현정(2차 108인)

8월 15일 도서출판 예서원에서 <흔들려도 괜찮아, 너는 지금 피어나는 중이야> 책을 출간하였다. “지친 마음에 다가가는 고요한 위로의 시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그림에 담긴 저자의 불교적 예술성을 국문과 영문으로 실고 있다. 감정이 일고, 마음이 움직이며, 몰입의 흐름이 시작되는 순간 작업을 시작하면서 항상 음악과 함께 했음을 강조하며, 독자도 저자의 작품을 통해 색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순간의 마음을 느끼기를 기대하고 있다.



○ 임현주(7차 108인)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개최된 ‘제43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서 105주년을 맞은 대불청, ‘불교청년대회’의 표창 수여식에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정진원(7차 108인)

8월 24일 잠실 불광사에서 ‘훈민정음과 불경 이해본: 세종과 세조, 신미대사와 온백성이 함께 만든 위대한 유산’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강연에서 정 교수는 “<월인석보>를 비롯한 훈민정음 불경은 조선의 임금과 승려, 집현전 학자, 궁궐 여성과 이름 없는 백성 모두 참여한 조선의 집단 지성 합작품”이라고 강조했다.



○ 정진희(3차 108인)

8월 7일 BTN에서 문광스님 <한국학 에세이> 마지막 강의 시간에 웅기(독)를 사용하여 한국적 이미지로 꽃장식 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5.06.21~2025.08.31)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비

김지영	900,000
노인자	1,500,000
원유자	200,000
이명순	300,000
이윤희	600,000
황외숙	1,200,000

박경자(5차)	1,000,000
박근연(1차)	1,000,000
박명혜(2차)	1,000,000
박정애(8차)	1,000,000
박종균(6차)	1,000,000
박찬재(9차)	1,000,000
백경임(1차)	1,000,000
백미현(10차)	1,000,000
사기순(4차)	1,000,000
서현숙(7차)	1,000,000
서혜경(1차)	1,000,000
성민선(3차)	1,000,000
성영란(10차)	1,000,000
손미영(7차)	1,000,000
손미원(9차)	1,000,000
손인희(9차)	1,000,000
송현주(4차)	1,000,000
신용현(9차)	1,000,000
안수연(11차)	1,000,000
안영(10차)	1,000,000
안애원(7차)	1,000,000
양숙자(5차)	1,000,000
양정희(9차)	1,000,000
양재화(7차)	1,000,000
어순아(9차)	1,000,000
엄희원(10차)	1,000,000
오음옥(3차)	1,000,000
우인순(8차)	1,000,000
윤정로(9차)	1,000,000
이경자(5차)	1,000,000
이계경(4차)	1,000,000
이기영(1차)	1,000,000
이두영(10차)	1,000,000
이명숙(7차)	1,000,000
이순이(3차)	1,000,000
이연숙(1차)	1,000,000
이영주(7차)	320,000
이원표(8차)	1,000,000
이윤희(10차)	1,000,000
이인옥(3차)	1,000,000
이인자(2차)	1,000,000
이재실(8차)	1,000,000
이주연(6차)	1,000,000
김일명(7차)	1,000,000
김주현(8차)	1,000,000
김지영(5차)	1,000,000
김진여심(5차)	1,000,000
김현지(7차)	1,000,000
김형인(9차)	1,000,000
남성민(1차)	1,000,000
남혜경(11차)	1,000,000
류인숙(5차)	1,000,000
리영자(1차)	1,000,000
문명화(5차)	1,000,000
박강자(6차)	1,000,000

(사)지혜로운여성 이사회비

구윤임	200,000
김숙애	1,200,000
서혜선	300,000
안영	1,200,000
양현정	300,000
최혜경	300,000

여성불자108인회 평생회비

강미중(5차)	1,000,000
강설미(7차)	1,000,000
고은자(10차)	1,000,000
권지혜(7차)	1,000,000
김경량(10차)	1,000,000
김귀순(7차)	1,000,000
김미연(10차)	1,000,000
김미원(9차)	1,000,000
김복순(2차)	1,000,000
김선옥(6차)	1,000,000
김숙자(3차)	1,000,000
김순남(10차)	1,000,000
김순목(3차)	1,000,000
김양식(1차)	1,000,000
김영순(3차)	1,000,000
김옥희(5차)	1,000,000
김외숙(2차)	1,000,000
김용란(11차)	1,000,000
김용숙(7차)	1,000,000
김윤옥(7차)	1,000,000
김은희(4차)	1,000,000
김일명(7차)	1,000,000
김주현(8차)	1,000,000
김지영(5차)	1,000,000
김진여심(5차)	1,000,000
김현지(7차)	1,000,000
김형인(9차)	1,000,000
남성민(1차)	1,000,000
남혜경(11차)	1,000,000
류인숙(5차)	1,000,000
리영자(1차)	1,000,000
문명화(5차)	1,000,000
박강자(6차)	1,000,000

정인행(11차)-1차분	500,000
정진원(7차)	1,000,000
조명숙(8차)	1,000,000
조영우(7차)	1,000,000
조은수(2차)	1,000,000
조재란(10차)	1,000,000
조정현(8차)	1,000,000
조희금(2차)	1,000,000
최나영(10차)	1,000,000
최수영(11차)	1,000,000
최영옥(9차)	1,000,000
최윤정(3차)	1,000,000
최해숙(4차)	1,000,000
추미실(3차)	1,000,000
취환(11차)	1,000,000
하봉자(10차)	1,000,000
홍소진(10차)	1,000,000
홍원숙(8차)	1,000,000
홍정애(3차)	1,000,000
조은경(10차)	1,000,000
박기옥(10차)	1,000,000
이천희(10차)	1,000,000

여성불자108인회 회비 (CMS-6,7,8월)

강명희(6차)	60,000
강순주(11차)	30,000
강옥란(7차)	30,000
강옥희(7차)	30,000
강희경(10차)	30,000
게미향(8차)	30,000
구윤임(11차)	10,000
권영순(11차)	40,000
김수향(11차)	30,000
김순자(11차)	30,000
김양희(6차)	30,000
김영미(6차)	30,000
김옥주(7차)	30,000
김윤숙(11차)	30,000
김청옥(7차)	30,000
남동현(6차)	30,000
남동화(3차)	30,000
노희순(3차)	15,000
문보경(6차)	30,000
박경현(11차)	30,000
박귀원(8차)	30,000
박정희(6차)	30,000
박혜옥(11차)	30,000
배순자(6차)	30,000
변경이(8차)	20,000
서은숙(6차)	30,000
순유림(11차)	30,000

송주익(9차)	30,000
송혜진(8차)	30,000
신숨이(11차)	20,000
신재영(6차)	30,000
안인자(9차)	40,000
양경윤(5차)	30,000
오지연(4차)	30,000
유진희(6차)	30,000
유화경(11차)	30,000
윤정선(6차)	30,000
윤효영(8차)	30,000
이사구(11차)	90,000
이영희(8차)	20,000
이예숙(11차)	30,000
이은경(11차)	30,000
이종용(조명숙)	30,000
이진행(11차)	30,000
이혜숙(9차)	30,000
임정애(6차)	30,000
전영숙(8차)	30,000
정은희(6차)	30,000
정지원(7차)	30,000
정혜정(9차)	30,000
조경숙(6차)	20,000
조귀자(9차)	30,000
조민기(11차)	30,000
조은수(2차)	20,000
조정숙(6차)	30,000
조현숙(10차)	30,000
주찬옥(6차)	30,000
채진영(11차)	30,000
최복란(8차)	30,000
최은희(9차-제주)	30,000
최희경(7차)	30,000
한주영(10차)	30,000
한채화(9차)	30,000
한혜원(7차)	50,000
함양자(11차)	30,000
황남채(1차)	30,000
황명자(6차)	30,000
황선화(5차)	30,000
황수남(9차)	30,000
황치석(10차)	30,000

여성불자108인 회비 (온라인)

박종덕(5차)	100,000
홍경희(2차)	30,000

회원회비 (CMS-6,7,8월)

강희출	15,000
권은량	30,00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어석	20,000	진여스님	90,000	유명숙(최혜경 권선)	80,000	위즈덤 합창단 회비 및 후원	
김연희	30,000	차원준(최비안)	30,000	유옥준(정진희 권선)	60,000		
김영희	30,000	최순진	30,000	이시구	1,080,000	김여주	180,000
김정희	30,000	하양자	30,000	이기항(1차)	960,000	김옥경	90,000
김학엽	15,000	한승우	30,000	이영주(7차)	4,680,000	신현옥	90,000
김현숙	30,000	허난영	30,000	이영희(8차)	580,000	안형선	90,000
나경윤	15,000	허영숙	30,000	이인지고문	1,600,000	어순아	180,000
노지숙	30,000	형난옥	30,000	임지영(정진희 권선)	780,000	윤인숙	60,000
도인희	30,000	홍소기(진여스님)	30,000	최윤옥(7차, 최혜경권선)	870,000	황경자	180,000
민선정	30,000	홍점례	15,000	최정경(이영미 권선)	1,080,000	황은복	180,000
박말희	15,000	황유진	30,000	형난옥(6차)	7,080,000		
박문숙	30,000			홍소진(10차)	900,000		
박복순	15,000			황규잠(정진희 권선)	90,000		
박영재	3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고등동복지관 후원	
박지선	30,000	(CMS-6,7,8월)					
박홍우	30,000			기타후원금 온라인		권해영	30,000
서혜정	30,000	강인영	30,000	(다문화봉사단 / 교정교회센터 /		김미영	60,000
선문스님	30,000	김형숙	90,000	우바이예찬 / 재소자영치금 / 기타)		김지현	60,000
송만순	60,000	손미영	120,000			김혜미	60,000
안미경	30,000	송옥순	90,000	고국진	30,000	김희정	2,322,000
안석자	30,000	신수영	30,000	고부진	40,000	박영숙	90,000
연명순	30,000	유옥준	90,000	고은자	300,000	방효정	80,000
왕민영	30,000	이기항	90,000	고채은	150,000	오혜진	20,000
원유자	30,000	임주연	90,000	귀빈여행사(양매자)	60,000	유연서	40,000
유명숙	30,000	조재엽	120,000	김선옥	100,000	윤정은	30,000
윤용옥	15,000	최비안	90,000	김영미	20,000	이경미	30,000
이강희	15,000			김옥경	50,000	장혜연	40,000
이교은	3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온라인)		김외숙	200,000	정혜자	40,000
이미선	90,000			김인숙	1,020,000	최다혜	30,000
이숙자	30,000			김정숙(이해남)	1,000,000	한경숙	60,000
이승자	30,000	김선옥(6차)	200,000	남동현	21,500	한정미	300,000
이영재	30,000	이윤희	50,000	노경자	40,000		
이윤구	30,000	최윤옥(7차)	90,000	서울시한부모가족센터		금강경 회향보시금	
이윤희	30,000	홍소진(10차)	60,000		2,755,000		
이재명(정원일)	30,000	황규잠(정진희권선)	60,000	여송이	10,000	김연수	100,000
이재영	30,000			이기항	400,000	남동현	100,000
이정애	30,000	불교여성광장건립(불교르네상스		이영미	100,000	노숙령	100,000
이정호	30,000	스키 꿈 2)_ 약정 잔액		이정호	100,000	박종덕	100,000
이진수(무관스님)	30,000			이해남	100,000	박혜옥	100,000
이화선	30,000			임순덕	10,000	성영란	100,000
임주연	30,000	강순주(원유자 권선)	1,080,000	잠실자생한방병원	950,000	안가순	100,000
신은영(자우스님)	30,000	구윤임(11차)	990,000	전경연	90,000	양정희	100,000
장길수	60,000	권수형(4차)	360,000	정대련	200,000	어순아	100,000
장영선	30,000	김선옥	400,000	정법신행회	500,000	이영주	100,000
장윤실	30,000	김연수	80,000	정유진	90,000	이정호	100,000
전미옥	30,000	김용숙(7차)	1,080,000	정진희	100,000	정대련	100,000
정명모	30,000	김인숙고문	55,315,750	한화연(이해남)	1,000,000	하수경	100,000
정숙인	90,000	김종숙	110,000	홍라희	3,000,000	황은복	100,000
정주현	30,000	남동현	990,000	황수경	90,000		
정희자	30,000	박순(1차)	9,000,000				
조귀자	30,000	배영숙(10차)	1,080,000				
조여경	30,000	변영숙(김여주자)	1,080,000				